

승리신문

완성자(성인군자·부처님·하나님) 사는 세상이 지상천국

땅에는 땅의 생물이 살고, 바다에는 바다 생물이 살 듯, 지상천국에서 살 사람은 완성자가 되어야 한다.

작금의 세상은 죄악세상이라고 한다. 왜 죄악세상이라고 하는가? 불완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괴롭고 고통, 슬픔과 탄식,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단 하루도 조용하고 편안할 날이 없다.

이러한 세상을 외계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신이 만든 것도 아니다. 세상 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사람에게 의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바꾸는 일도 그 누가 해주지 않는다. 바로 이 시대의 주역인 우리들이 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완성자가 되어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인류 역사 상 최고의 개혁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1963년 연설

-미국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마틴 루터 킹 데이)을 국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1963년 8월 23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평화행진대회가 열렸다. 여러

사람이 연설을 했기 때문에 청중들의 반응이 시들어질 때, 마지막 연사로 킹 목사가 나서서 저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진실되고 호소력 있는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감동을 주고 세상을 바꾼다.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있을 때, 꿈과 이상은 현실화된다.

왜 지상천국이 실현되지 않는가?

지상천국, 유토피아 사상은 인류의 오랜 꿈이자 소망이다. 현 시대를 말하기를

컴퓨터의 지능과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컴퓨터피아”의 세상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비유하기를 삶에 유용한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고 인용한다. 맞는 말이다. 지금과 같은 컴퓨터피아의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사용하면 사람의 편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지만, 불의하고 악한 사람에게 쓰이면 사람을 해치고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서 인간의 도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이다. 도덕적 문제와 올바른 인간성이 전제되지 않는 과학과 기술, 무기의 발달은 오히려 인간을 해치고 삶의 타전인 지구의 존립마저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도전은 아주 고대로부터 있어 왔다. 유토피아 사회는 고대 그리스 이전 수메르문명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문화적으로 이상사회 건설을 쫓아내기 시작한 때가 바로 고대 그리스문명 때이다. 고대 그리스의 유토피아는 문명을 지난날 절정을 이루었던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문명의 붕괴를 막고 되살리기 위한 각가지 계획을 쌓은 청사진이었다. 적어도 문명이 더 이상 쇠퇴하는 것만은 막고자 하는 희망에서 문명을 그때의 수준에 고정시켜 두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러한 지상천국에 대한 강한 열망에 불타올랐던 때가 있었다. 조선후기, 세도 정치기에 백성들은 갈수록 삶이 힘들어지자 현실의 삶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괴로운 지금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개벽된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천주교사상’이다. 천주교는 17세기에 처음 들어와 자생적으로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점차 세간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천주교사상이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과 내세의 영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천주교의 자극을 받아 국내에서도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이다. 동학은 천주교사상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 이미 있던 사상들을 종합했다. 사람이 곧 하늘(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으며, 보국안민을 내세워 열강들의 침략에 강력하게 저항했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지상천국 건설에 대한 꿈이 실현되지 못했었던 이유와 원인이 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도모하면 이러저러한 문제와 일들이 꼬여서 그 뜻을 이루기 어렵다. 또 사회적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꿈꾸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꿈 꾸고 행동할 때, 현실화된다. 그러므로 각자가 완성자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실천만이 그 답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5]

“자유율법을 지키는 데 매진하라”

오늘은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접붙임이 된 자라면 한 몸이 되는 고로 이 사람의 생일이 곧 여러분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기해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 생활을 해야, 이 뜻깊은 날의 의의가 되살아나는 것이지, 세상

의 무슨 기념행사처럼 허례허식(虛禮虛飾)으로 움직여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갱생일(更生日)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는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자유율법을 지키는 데 매진하도록 하세요!*

이기는 삶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었다. 서울 시내를 피난길을 떠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남자가 가방을 든 채 은행으로 바빠 들어가고 있었다.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말했다.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이 난리 통에? 대출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대출장부도 분실되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 남자는 잠시 어떻게 할까 망설였다. 지금 내가 빚을 갚아도 그 돈이 제대로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거듭한 끝에 기어이 빚을 갚기로 결심했다. 사나이는 은행원들에게 빚을 갚겠다고 말하고는 그 대신 그 영수증에 그 은행원들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후 또다시 급하게 용자가 필요해진 그는 부산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 은행 분점을 찾아갔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출 신청은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는 대출받기를 포기한 채 은행 문을 나서다가 문득, 자신이 서 울에서 갚은 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꺼내서 대출 담당 과장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영수증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 영수증으로 자신의 신용을 증명할 수 있었고 용자를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대출받은 자금과 신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그것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유리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정직함’으로 크나큰 일을 해낸 그는 바로 한국유리 주식회사의 설립자 최태섭 회장이다. 그를 사업가로 다시 일어서게 만든 자본은 바로 이렇게 축적된 것이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 포춘(fortune)지 5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1435개의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3배 이상의 누적 주가 수익을 달성한 기업은 11개 기업뿐이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11개의 초우량 기업들의 성공 요인이 탁월한 리더십에 있었다고 한다. 성공하는 초우량 기업의 리더는 인간적 겸양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진 리더로, 사업가로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나서 성공에 대한 공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겸손한 인간적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쉽게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추고 있어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리더는 여러 가지 리더들의 특징들이 모여 탄생한다. 리더십은 삼각대라는 말이 있다. 한쪽 다리는 열정 혹은 정열이고 또 하나는 능력 혹은 전문성이며 나머지는 성실 혹은 도덕성이다.*

"이 구둣물 마을에서 앞으로 세계를 구원할 큰 인물이 날 것이다"



조한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 _ 김포 감정리 우저서원 (牛渚書院)

이샤야 선지자는 동방에 속한 땅골 땅 모퉁이 나라에서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가 동쪽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해 문는 나라이다. 구세주가 탄생한 곳은 한국의 모퉁이 땅에 해당하는 김포(金浦)인데, 북쪽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동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서쪽으로 서해바다가 있는 고로, 김포 땅은 모퉁이 중에 모퉁이 땅에 해당하기에, 이샤야 41장 1~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구세주 출현 장소가 응하여 한국 하고도 김포에서 동방의 의인 조희성님이 탄생하셨다.

격암유록 출장론(出將論)에 “서호출생진인(西湖出生眞人)”이라고 했는데, 서(西)는 오행상(五行上) 금(金)이요, 호

수 호(湖)자는 물가 포(浦)자와 같은 뜻으로 서호(西湖) 즉 김포(金浦)에서 진인(眞人)이 출생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생미륵불은 신미생으로 오신다는 것과 명성(明星)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목시륵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이긴자에게 사백별이라는 이름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조희성님은 밝을 희(熙)자 별성(星)자의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격암유록 승운론(勝運論)에서는 정도령은 하늘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천생자(天生子)이기에 무부지자(無父之子)라고 했다. 무부지자(無父之子)란 아버 부(父)자, 없을 무(無)자, 갈 지(之)자, 아들 자(子)로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뜻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성모님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생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우물 정(井)자가 가운데 있는 이름의 부락에서 세계 만민을 구제하는 주인공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조희성님이 가슴에 복두칠성의 점이 새겨진 채 태어난 곳이 김포에 있는 감정리(坎井里)이다.

신미년 1931년 양력 8월 12일 무궁화가 만발하는 시기에 조희성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만백성을 무궁화와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

다는 것이다. 성모님은 조희성님을 잉태하셨을 때 신이(神異)한 꿈을 꾸셨는데, 꿈에 계양산에 올랐는데 갑자기 오색찬란한 빛과 구름이 온 산을 뒤덮더니 흰옷을 입은 선녀들 30여 명이 하늘에서 날아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 선녀들이 성모님 주위를 에워싼 후 뒤편 돌더니 일제히 성모님을 향해 큰절을 하기에 성모님께서 “어떤 연고로 그러시느냐?”고 물으니 한 선녀가 “당신의 태중에 계신 분은 인류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이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일할 위대한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중에 계신 그분을 향해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 보존하십시오.”라고 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의 선봉장으로 금산 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 7백 명의 의병과 함께 장렬히 순국(殉國)하신 중봉 조한 선생은 1544년 6월 28일(중종 39년) 김포 감정리에서 출생한 분이다. 조한 선생은 자신의 출생지와 관련해서 예언하기를 “이 구둣물 마을에서 앞으로 세계를 구원할 큰 인물이 날 것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구둣물은 김포 감정리에 속한 내용, 외옹, 구둣물, 나진교, 독작골이라고 불리는 5개 부락 중 하나이다. 조희성님의 친조부는 음력 6월 28일에 태어난 그의 손자가 조한 선생이 예언한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손자를 애지중지하셨다고 한다.*

경축 제 95회

성탄절

2025년 8월 12일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이긴자가 하나님입니다. 이 제단에 오면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소멸시키므로 마귀의 시체가 되는 시커먼 죽은 피가 소변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서 오만가지 병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태풍은 동해 바다에서 기역자로 꺾어 돌려 치는 것도 보여주었고 비가 온다고 기상대의 일기예보가 나온 다음에 비를 못

오게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 본인의 역사를 하므로 우주에 가득 퍼져서 공기를 차갑게 하므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가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 찢은 듯이 날이 개이며 비가 그치는 것입니다. 5년간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제69호 1986년 8월 17일자 승리신문에서 인용).”